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퀀텀 오브 더 시즈호가 승객과 승무원 6000여 명을 태우고 감만부두 3선석에 입항해 정박해 있다. 마쳐 리조트나 특급 호텔이 들어선 것 같다.

■ 퀀텀 오브 더 시즈호

- 무게 16만8700톤
- 길이·폭 348m·50m
- 높이 63m
- 승객정원 4152명
(최대 4905명 승선)
- 크루징 속도 22노트
- 건조비용 9억3500만달러
- 취항 2014년 10월 중국 상해를 모항



남구의 제 발전 1 16만8000톤 크루즈선, 감만부두 입항 현장

30만 외국관광객의 관문 컨테이너 부두의 ‘이중생활’

크루즈선을 두고 흔히 ‘바다 위의 호텔’이라고 부른다. 괜한 현사가 아니다. 감만부두에 정박한 크루즈선을 처음 봤을 때 ‘리조트가 왜 부두에 있지?’라는 생각이 스쳤다. 크루즈인지 모르고 봤더라면 십중팔구 호텔로 착각할만하다.

지난 8일 퀀텀 오브 더 시즈호(Quantum of the Seas, 이하 퀀텀호)가 전날 일본 나가사키항을 떠나 남구 감만부두에 입항했다. 세계 2위 크루즈선사인 RCI(로열캐리비언 인터내셔널) 소속으로 아시아 지역에선 가장 큰 크루즈선박이다. 무게 16만8000톤, 길이 348m에 높이만 무려 63m에 이른다. 부두에선 배가 한 눈에 담기지 않을 정도다.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암벽장의 거대한 붉은 곰 모양이 인상적이다.

승객, 승무원을 포함해 무려 6000여명을 싣고 왔다. 작은 도시시 하나를 옮겨왔다. 이른 아침인데도 부두에는 전세버스 120대가 관광객 맞을 체비를 하고 있었다. 이 풍경 역시 크루즈선 못지않은 장관이다.

오전 8시를 넘기자 관광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황량한 컨테이너 부두가 명절 앞문 시장처럼 변했다. 피켓을 든 가이드를 따라 관광버스에 일제히 몸을 실었다. 한류의 힘인지 아줌마, 유커들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향해 “오빠”를 연호하는 여유도 보였다. 초조화 크루즈선을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시켜 ‘결례’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외

려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들이 신기한지 다들 표정은 밝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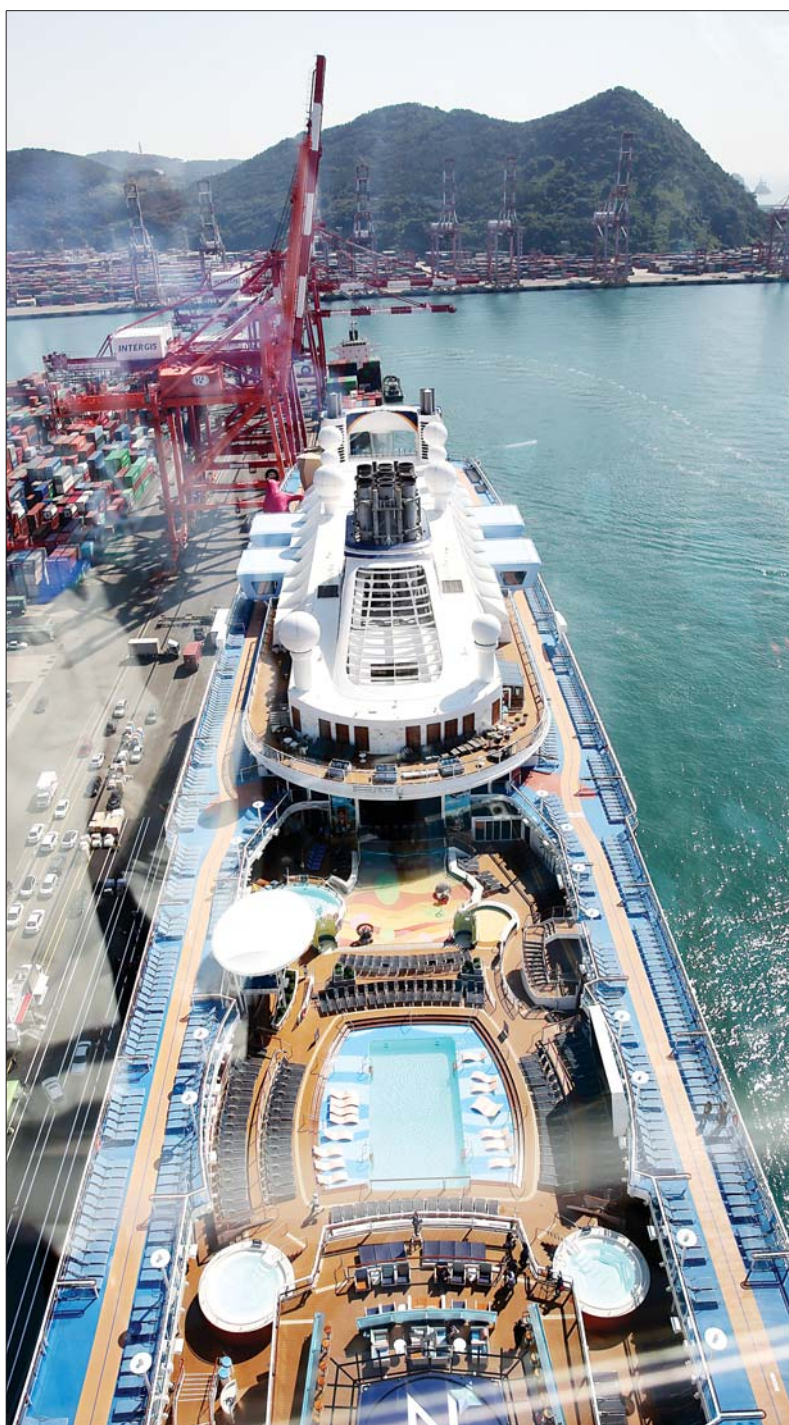
크루즈 관광객들의 부산 관광 패턴은 대체로 평이하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부산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루트는 해운대 방향이 압도적이다.

특히 해동용궁사, 해운대해수욕장, 용두산공원은 빠지지 않는다. 면세점, 백화점 쇼핑 때문으로 여겨진다. 부두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는 “쇼핑을 빼면 관광버스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쇼핑 관광에만 치중하면 환율 변동에 따라 거품이 빠질 수 있고 관광 문화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충성도’를 높일 창의적 관광 상품과 루트 개발이 어렵다.

감만부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자유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이런 자유여행객들을 위해 부산역~감만부두를 오가는 45인승

승객·승무원 6000명, 버스 120대 시장 방불

자유여행객 1000여명 남구 관광지 유입 고민



▲크루즈선 갑판에 설치된 360도 회전 공중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퀀텀 오브 더 시즈호와 감만부두 전경.



실야의 감만부두 작업 현장.

‘남구는 항구다’

우암·신감만·감만·신선대

‘컨’ 전용부두 무려 4곳 위치

바다를 면하고 있는 남구는 이웃 영도와 함께 파도를 막아 항만과 부두가 들어서기에 천혜의 장소다.

부산신항으로 항만 시설이 옮겨가면서 예전만 못하지만 부산 북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항이다. 북항에 남아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모두 5곳. 그 가운데 우암, 신감만, 감만,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등 4곳이 남구에 위치해 있다. 4개 컨테이너부두의 연간 하역능력은 464만TEU. 총 부두 연결 길이 4.2km에 면적은 서울 여의도에 육박한다. 이들 부두를 통해 세계 주요 30대 선사와 세계 유수의 100여개 선사가 기항한다.

그 가운데 감만부두는 총 사업비 472억원을 들여 1998년 4월 개장했다. 부두길이 1400m, 2013년 146만5,000TEU를 처리해 자체 하역능력의 94%로 활발하게 움직였다. 감만부두와 함께 물류산업의 축을 맡고있는 신감만부두는 2002년 4월에 개장한 중소형 컨테이너 전용부두다. 부두길이 826m, 하역능력 78만TEU 등 북항의 컨 부두 가운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왜소하지만 중요성은 매우 크다. 2013년 기준 103만TEU를 처리해 자체 능력을 갹신했다. 감만부두와 신감만부두는 부산항 물류의 요체이자 감만동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산업이다.



확장이전! 요리 / 조리학원

"NCS규격 넓은 최신식 조리대 시설"

□ 조리사 자격증반(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과정반)
□ 진학반 (중/고등부) / 웨프, 조리기능, 창업 양성반
□ 취미, 펄백 이바지, 신부수업, 아동, 생활요리반
□ 1:1 맞춤 실습실 / 최신 인테리어, 운수, 조리대 시설

□ 국비지원 NCS 직업훈련교육 승인기관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관인 제3424호) 요리 / 조리사 자격증 취득 전문기관

대연음식나라조리학원

부산 남구 대연동 1729-5 남천빌딩4층 (대연역 1번출구 옆)
수강문의 Tel 051-628-6464 www.yescook.co.kr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환경관리지도사1급 과정」

수강생 모집

미래를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

환경관리지도사1급 과정 제5기 수강생 모집 안내

- 강의기간 : 2016년 3월 16일(수)~6월 8일(수)(12주)
- 수강료 : 300,000원(교재비 2만원 별도)
※ 자격증발급비 및 응시 수수료 및 검정료 5만원 별도(자격시험 3일전까지 환불가능)
- 접수장소 :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 문의처 : 행정실 ☎(051)663-5311 ~ 6
- 등록방법 : 방문 및 전화접수 (2016년 3월 15일까지)
- 입금계좌 : 부산은행 036-01-032467-0 (경성대학교)

환경관리지도사1급과정 지도교수 박옥수 010-2848-0490 (※직접 강의)

- (현)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 (현)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 (현)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 (현)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국가지도자과정) 외래교수
- 소프초조선 201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혁신 한국인” 사회공헌 부문(혁신교육)
- 소프초서울(2013 특별기획) 고객감동 & POWER KOREA “신한국부문” 대상
- 국제신문 창조혁신기업 & CEO 환경경영부문 대상

■ 경성대학교 총장 수료증 수여 (과정 이수자 중 80% 이상 출석시)
■ 환경관리지도사1급 자격증 (민간 자격관리기관 : 국제리더관리협회 발급, 민간자격등록 제2013-1770호)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1275-6 • 전화 : (053)782-3362 • 대표 : 이지은

강좌명	모집인원	수강료	교육기간(12주)	강의시간(수요일 야간)
환경관리지도사1급과정	30	30만원	3월 16일~6월 8일	18:30~21:30

교육대상 : 청소년역업체 환경담당실무자, 환경관련업체실무자, 시의원, 구의원, 환경단체 회원, 청년회,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퇴직자 및 일반인, 주부 등
※부산시 민간환경단체 등록중(환경지킴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 영예환경시민원 등록 가능

맞춤 농 공장 : 슬라이딩 농

침대 29만원

식탁 19만원

책상 10만원

2층 사무가구 T.628-1806

소파 38만원

장농 58만원

에몬스가구 대연 못골버스 정류소 앞

신일 이불 솜공장

■ 한숨을 틀어서 새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불 깎아 드립니다.
■ **훈수이불**, 침대카바, 애기이불 있습니다.
■ 100% 목화솜, 명주솜, 베개솜 있습니다.

☎ 위치 : 남구 동명로 146번길 47 (용호동)
☎ 051)626-3558
☎ 010-3831-2457